

#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Leisure Time, Leisure Cost and Leisure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이현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yun Ah L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Oi Sook Kim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uple's leisure time, leisure cost and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Data for 214 couples were gathered from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amount of leisure time was very different between husbands and wives. And couple's leisure time was different according to wives' employment status.
- (2) The amount of leisure cost was very different between couples and between employed wife and non-employed wife.
- (3) Couple's leisure satisfaction was also different between couples and between

employed wife and non-employed wife.

(4) In husbands' model, leisure time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eisur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n wives' regression model was differe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Employed wives' leisur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and cost while non-employed wives' leisure satisfaction was related to leisure cost and age.

## I. 문제제기

여가에 대한 관심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증가하여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은 직업생활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사회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양적으로 증가되어 기본적인 생리적·물질적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된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충족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정신적 욕구는 생활수준의 양적 확대보다는 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것이다.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가생활'이 전반적 생활의 질이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진봉국, 1993; 김외숙의 7인, 1995; 한경미, 1995; 김순미의 2인, 1996; 홍성희, 1998; Ragheb & Griffith, 1982)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한국의 사회지표, 1997)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1.5%, '불만' 44.9%로 대부분의 사람이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39.2%), '시간부족(29.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커진데 반해, 실제 여가생활은 시간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인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준 것이라 생각된다.

여가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여가관련 연구도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 여성,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학, 사회학, 노년학, 체육교육학, 관광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 가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민경애·윤복자, 1985; 한경미·황덕순, 1990; 김외숙, 1991; 장윤희, 1991; 한경미, 1995; 홍성희, 1991, 1996)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김애련, 1997; 홍성희, 1998, 이정우 등, 1997)이 많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부의 취업여부가 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나누어 본 것(한경미·황덕순, 1990; 홍성희, 1991; 한경미, 1991, 1995)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가정내 모든 생활이 부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부부를 모두 대상으로 한 여가생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여가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또는 여가참여도조사를 통해 객관적 여가참여시간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가에 대한 인식 또는 동기, 만족도 등 주관적인 여가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가생활이 전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 이것이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때, 두가지 연구경향을 종합하는 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여가불만족의 주요 요인이 시간, 비용 등이라는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가생활을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여가만족도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

용, 여가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 제 요인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부부의 여가생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가 부인 자신과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 생활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부부를 4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부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제언해 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시간

생활시간구조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여가시간이 생활시간의 하나의 구성요소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여가시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생활시간조사들은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을 직접 비교하여 제시할 수는 없다. 대신 성인남녀의 여가시간을 기초로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을 유추해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평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휴일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최근 문화체육부에서 실시한 국

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1995)에서도 알 수 있는데, 평일 1-2시간의 비교적 짧은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사람 중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더 높고, 3-4시간의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사람 중에는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일 여가시간이 7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평일에는 여성이, 휴일에는 남성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1〉 남녀의 여가시간 경향

(단위 : 시간·분)

	한국관광공사 (1985)	시정개발연구원 (1994)	KBS조사 (1995)
여성	평일 3.18 휴일 5.58	평일 4.26 휴일 6.23	평일 5.49 휴일 7.25
남성	평일 2.55 휴일 6.36	평일 3.33 휴일 7.26	평일 5.44 휴일 8.30

한편, 가정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생활시간구조나 생활시간배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정빈, 1981; 한경미, 1991; 조희금, 1993)과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현아, 1994; 이기영 외 4인, 1996), 부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것(伊藤セツ외 1인, 1989; 天野寛子 외 4인, 1996; 이기영 외 3인, 1994; 이기영 외 3인, 1996; 이승미, 1996)들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부부의

〈표 2〉 부부의 여가시간 경향

	Robinson (1977)**	Nickols 외 (1983)**	天野 외 (1996)**	민경애 (1985)*	한경미 (1991)**	이기영 외 (1994)**	이현아 (1994)**
전업부인	-	3.40	평일 4.34 휴일 5.28	평일 4.0 휴일 4.8	-	평일 5.50 휴일 7.19	-
취업부인	평일 3.12 휴일 8.12	-	평일 2.01 휴일 5.31	-	평일 1.43 휴일 5.49	평일 2.19 휴일 6.29	-
남편	평일 3.48 휴일 8.18	4.15	평일 2.19 휴일 8.25	-	-	-	평일 2.48 휴일 9.03

(\* 단위: 시간, \*\* 단위: 시간·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부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시기, 그리고 여가활동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이기영외(1994)의 연구와 이현아(1994)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일에는 부인의 여가시간이 남편보다 많고, 휴일에는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天野 외(1996)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부인의 취업여부를 고려할 경우, 당연히 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이 전업주부에 비해 적고, 남편보다도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부인의 취업이 충분한 여가시간확보에 일차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여가시간내 이루어지는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제시된 연구들에서 남편, 부인 모두 TV 시청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TV와 라디오 시청을 제외하고라도 대부분의 여가시간이 신문이나 독서, 휴식, 한담 등 소극적인 활동에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한국의 사회지표, 1997)에서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이 TV시청(41.2%), 수면 및 가사(29.5%), 스포츠 및 여행(11.4%),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등 감상관람(8.0%), 승부놀이(3.4%), 서예, 꽃꽂이, 그림 등의 창작적 취미오락(3.2%)의 순으로 나타나, 시간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TV 시청 등의 수동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스포츠 및 여행, 승부놀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Robinson(1977)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의 남녀차가 드러나 남성은 대중매체와 운동, 육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여성은 오락, 대화, 휴식, 뜨개질과 같은 가정중심적 활동과 종교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여가비용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여가관련 비용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여가비용을 직접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및 가처분소득의 증가 현황을 통해서 여가비용의 상대적인 증가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여가비용의 증가 경향은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계지출중 여가비와 관련있는 교양오락비의 비율이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3).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한 몇몇 연구(윤정혜, 1984; 양세정, 1991)에서 교양오락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지적 또한 여가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근거가 된다.

〈표 3〉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의 비율 변화

년도	1963	1973	1983	1993	1995
가계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 비율	0.7%	1.8%	3.7%	4.8%	5.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한편 최근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1995)'의 결과를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1985)'의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여가비용의 증가추이를 알 수 있다. 1985년 조사에서는 개인의 월평균 여가비용이 1-3만원인 사람의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던 반면, 1995년 조사에서는 1-3만원인 비율은 19.1%로 떨어지고, 3-5만원인 경우가 2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7-10만원인 비율(19.5%)과 10만원이상인 비율(15.6%)도 크게 늘어, 10년사이 여가비용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 근거해 여가비용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가비용이 1-3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여자가 많고, 7-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아,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여가만족도

Beard와 Ragheb(1980)에 의하면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Dumazedier(1974)와 Neulinger(1974)등 여가 연구자들이 규명하는 여가만족도의 공통적인 개념은 특정 여가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정리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한국의 사회지표, 1997)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1.5%, '불만' 44.9%로 대부분의 사람이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체육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참여 실태조사(1995)'에서도 여가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27.6%)보다 불만족하는 비율(29%)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10년전 행해진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1985)'에서 조사된 결과(만족 21.7%, 불만족 36.3%)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사람보다는 불만족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

한편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표 4>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사회통계조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여가관

련요인과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여가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가생활과 관련된 기준의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주된 요인은 시간과 비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의 사회지표'(1997)에서는 '경제적 부담'(39.2%), '시간부족(29.8%)이 가장 주된 여가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여가활동 참여실태조사'(1995)에서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어서'(26.5%), '시설 및 장소가 부족해서'(24.2%), '비용이 없어서'(15.3%) 등이, 그리고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1985)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32.6%), '비용이 부족해서'(26.3%) 등의 응답이 여가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여가관련 요인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부인의 취업여부 등이 있다.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가만족도가 전체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김외숙 등(1995)과 한경미(1995)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가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간주하고 살펴보았다.

#### (1) 여가관련 요인

①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에 관한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이 여가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가활동참여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표 4> 남녀의 여가만족도 경향

(단위 : %)

여가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남	여	남	여	남	여
국민여가생활실태분석과 대책(1985)	24.5	18.9	43.4	40.6	32.1	40.4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1995)	26.1	20.4	41.9	45.4	24.5	24.4
한국의 사회지표(1997)	12.7	10.3	44.1	43.3	43.2	46.3

선행연구(박진경, 1994; 이성철, 1995; 김경식, 1996; 정영린, 1997)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참여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활만족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여러 선행연구(Raghab & Griffith, 1982; Sneegas, 1986; Russell, 1987; 이종길, 1992; 이성철, 1996; 김경식, 1996)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증가가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② 여가비용 :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에 관한 김외숙(1991)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중 하나가 비용장애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여가비용이 여가활동참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순미 등(1996)의 연구에서도 여가비지출 증가가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도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가비용은 여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인구통계적 요인

① 연령: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연구들(김외숙, 1977; 이정연, 1997; Firestone 외, 1988)에서는 연령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참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만족도가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참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때, 연령에 따라 여가만족도 수준도 다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1995)에서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② 교육수준 : 여가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김순미 외, 1996; 정영린, 1997)에서는 교육수준이 정적인 영향변수로 나타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고 (민경애, 1985), 여가활동참여가 증가하는 것(Bagheb, 1980)으로 나타난다. 국민여가활동

참여실태조사(1995)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교육수준은 여가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③ 가계소득 :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민경애, 1985), 여가활동참여가 증가하고(김외숙, 1977),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참여도가 다르다는(이정연, 1997)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계소득을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1995)에서도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④ 주택소유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은 가계자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계소득수준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순미와 홍성희(1996)의 연구에서 주택소유여부, 주택유형, 주택가격 등을 선택성 소비지출인 여가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보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들의 연구결과 주택소유여부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여가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⑤ 부인의 취업여부 : 부인의 취업은 우선 주부자신의 생활시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남편의 생활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森ます美, 1989). 한편 기혼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한경미, 1995)에서 취업주부들이 여가생활에 상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연(1997)의 연구에서도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서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취업은 여가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 연구문제1. 부부의 여가시간은 어떠한가?

- ① 연구문제1-1. 부부의 총여가시간과 활동영역별 여가시간은 어떠한가?

- ② 연구문제1-2. 부부의 여가시간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부부의 여가비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부부의 여가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4.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 (1) 여가시간

본 연구에서 여가시간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영역의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의 합으로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 ① TV·라디오시청, ② 신문·잡지, ③ 독서, ④ 취미·오락활동, ⑤ 강습·수강·학습, ⑥ 운동, ⑦ 가족단란, ⑧ 모임·교제, ⑨ 사회활동·소비자활동, ⑩ 종교활동

### (2) 여가시간요구도

여가시간요구도는 여가시간을 어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요구하는지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나, 문항③은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총여가시간요구도는 아래 4문항을 합하여 이를 4로 나눈 평균값이다 (단 ③문항은 역의 값을 더함).

- ① 노동시간을 줄여 수입이 줄더라도 자유시간을 확보하고 싶다.
- ②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자유시간을 확보하고 싶다.
- ③ 자유시간이 줄더라도, 연장노동이나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더욱 늘리고 싶다.
- ④ 연장노동 등으로 수입은 더욱 늘리고, 자유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확보하고 싶다.

### (3) 여가비용

여가비용은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월평균비용을 의미한다.

- ① 개인여가비용: 개인이 혼자서 즐기는 여가에 드

### 는 비용

- ② 부부여가비용: 배우자와 함께 즐기는 여가에 드는 비용
- ③ 가족여가비용: 가족이 즐기는 여가에 드는 비용
- ④ 총여가비용: 개인여가비용과 부부여가비용과 가족여가비용의 합.

### (4)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는 현재 여가생활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한일시간연구(1996)'의 일부분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부부 240쌍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14쌍의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5년 10월 16일에서 11월4일 사이에 면접이나 피조사자의 기록에 의해 이루어졌다.

##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으로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부의 여가시간, 여가시간요구도, 여가비용, 여가만족도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고, 부부간 또는 취업/비취업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와 t-tes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分	빈도(%)	변 인	구 分	빈도(%)
남편연령	20 - 29세	13( 6.1)	부인연령	20 - 29세	44(20.7)
	30 - 39세	112(52.3)		30 - 39세	100(46.9)
	40 - 49세	60(28.0)		40 - 49세	61(28.6)
	50 - 59세	29(13.6)		50 - 59세	8( 3.8)
남편교육수준	중졸이하	4( 1.9)	부인교육수준	중졸이하	19( 9.3)
	고졸이하	50(24.2)		고졸이하	76(37.3)
	전문대졸이하	16( 7.7)		전문대졸이하	21(10.3)
	대학이하	92(44.4)		대학이하	75(36.8)
	대학원이상	45(21.7)		대학원이상	13(6.4)
주택소유여부	자가	123(57.5)	부인취업여부	취업	107(51.9)
	비자가	91(42.5)		비취업	99(48.1)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이하	12(5.6)			
	101-200만원	77(36.0)			
	201-300만원	68(31.8)			
	301-400만원	32(14.9)			
	400만원이상	25(11.7)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부부의 여가시간

###### (1) 부부의 여가시간

인간의 모든 생활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하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가시간도 전체 생활시간 구조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 표에서는 24시간중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의 총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일에는 남편의 평균 여가시간이 2시간 31분으로 부인의 평균 여가시간 3시간 20분보다 약 50분 가량 적다. 그러나 부인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취업한 부인의 부부와 취업하지 않은 부인의 부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취업한 부인의 부부인 경우 남편보다 부인이 더 적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부인의 부부인 경우, 부인의 여가시간이 남편의 거의 두배에 달할 정도로 길게 나타났다. 이를 paired t-test 한 결과 비

취업부인의 부부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평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t-test로 분석해 본 결과,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1시간 30분 정도로 비슷한 반면, 부인의 여가시간은 취업에 크게 좌우되어 취업부인은 2시간 5분, 비취업부인은 4시간 41분을 여가시간으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 취업부인의 여가시간은 비취업부인의 1/2도 안되는 수준이다. 여가시간 비율을 보더라도 평일 취업부인의 경우 8.7%에 불과해 동일한 취업상태에 있는 남편의 10.5%보다 훨씬 작다.

평일여가시간과 달리 휴일 여가시간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이 부인보다 100분이상 길다. 여가시간의 비율을 비교해 보아도 휴일 남편의 여가시간은 32% 정도이나, 휴일 부인의 여가시간은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남편이 부인보다 긴 여가시간을 갖는 휴일 여가시간의 경향은 취업한 부인의

〈표 6〉 부부의 여가시간(평일)

(단위 : 분)

	남 편			부 인			부부간 paired t-test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t-test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부인의 부부간 paired t 값	비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남편의 t 값	부인의 t 값
TV · 라디오	60	63	62	59	121	89	0.2	-6.2***	-0.3	-6.1***
신문 · 잡지	12	14	13	6	20	12	2.4*	-1.6	-0.8	-4.1***
독서	9	12	10	9	26	17	-0.1	-2.3*	-0.8	-2.9**
취미 · 오락	4	8	6	3	16	9	0.1	-1.8	-0.9	-2.5*
강습 · 수강	16	14	15	9	14	11	1.2	0.1	0.2	-1.0
운동	7	9	8	5	18	12	0.6	-1.8	-0.5	-2.6**
가족단련	10	16	13	13	21	17	-1.2	-0.8	-1.5	-1.5
모임 · 교제	24	12	18	12	28	20	1.4	-1.9*	1.6	-1.8
사회 활동 · 소비자활동	3	0	1	2	5	4	0.1	-2.4*	0.9	-1.3
종교활동	5	4	5	7	12	9	-1.2	-2.7**	0.3	-1.0
총 여가시간	150	152	151	125	281	200	1.8	-7.6***	-0.3	-8.2***
여가시간 비율(%)	10.4	10.6	10.5	8.7	19.5	13.9	-	-	-	-

\* p &lt; .05 \*\* p &lt; .01 \*\*\* p &lt; .001

부부나 비취업한 부인의 부부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한편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휴일 여가시간의 차 이를 보면, 평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의 여가시간을 가지는데 반해, 부인의 경우 취업부인은 5시간 24분, 비취업부인은 6시간 46분의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이다.

평일과 휴일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가시간의 양은 휴일 남편-휴일 비취업부인-휴일 취업부인-평일 비취업부인-평일 남편-평일 취업부인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일 남편이 거의 8시간에 육박하는 긴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아마도 평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취업한 부인들의 경우, 직업노동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시간은 평일, 휴일 모두 가장 적게 나타난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쉬는 동안 취업한 부인은 가사노동이라는 또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취업한 부인에게 있어 가정은 여가를 즐기는 휴식공간이기보다는 다른 가족원의 재충전을 위해 봉사하는 또 하나의 노동공간인 것이다.

그럼 이제 부부의 여가시간을 활동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볼 때, 10가지 활동영역별 여가중에서 평일과 휴일 모두 TV · 라디오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생활시간조사나 선행연구와 일치한 것으로 TV가 여가생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남편의 경우 부인의 취

〈표 7〉 부부의 여가시간(휴일)

(단위 : 분)

	남 편			부 인			부부간 paired t-test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t-test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부인의 부부간 paired t 값	비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남편의 t 값	부인의 t 값
TV · 라디오	189	178	183	143	185	163	4.4***	-0.6	0.6	-2.6**
신문 · 잡지	16	19	17	6	5	6	3.4***	3.9***	-0.6	0.3
독서	15	17	16	5	10	7	2.8**	1.4	-0.4	-1.6
취미 · 오락	20	33	26	10	23	16	2.4*	1.3	-1.0	-1.3
강습 · 수강	13	16	14	2	1	2	1.7	2.5*	-0.3	0.4
운동	66	88	76	43	48	46	2.1*	3.2**	-1.3	-0.3
가족단란	30	53	41	28	51	39	0.5	0.4	-2.0*	-2.0*
모임 · 교제	40	30	35	24	28	26	1.9*	0.3	0.7	-0.3
사회 활동 · 소비자활동	9	4	6	8	6	7	0.1	-1.9*	0.7	0.4
종교활동	65	40	53	55	49	52	1.0	-1.3	1.3	0.4
총 여가시간	463	478	467	324	406	364	7.5***	3.5***	-0.6	-3.6***
여가시간 비율(%)	32.2	33.2	32.4	22.5	28.2	25.3	-	-	-	-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업여부와 상관없이 평일 1시간 정도, 휴일 3시간정도 TV · 라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취업여부에 따라 평일, 휴일 모두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평일에는 비취업부인(2시간1분)이 취업부인(61분)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차이를 보면, 평일에는 비취업부인의 부부(부인)·남편에게서 그리고 휴일에는 취업부인의 부부(남편)·부인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외 남편의 평일 여가활동 중 신문 · 잡지, 독서, 강습 · 수강, 가족단란, 모임 · 교제등의 활동에 10분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활동들은 10분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휴일의 경우 운동(76분)과 종교활동(53분), 가족단란(41분), 모임 · 교제(35분), 취미 · 오락(26분), 신문 · 잡

지(17분), 독서(16분) 등 그나마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인의 그외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은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약간 길다. 부부간 차이는 평일 비취업부인의 부부간에, 그리고 휴일 취업부인의 부부간에 많이 나타난다. paired t값의 통계적 유의도를 중심으로 보면, 평일의 독서, 모임 · 교제, 사회활동 · 소비자활동, 종교활동 영역에 비취업부인의 남편이 그 부인보다 적은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휴일의 신문 · 잡지, 독서, 취미 · 오락, 운동, 모임 · 교제등의 영역에서 취업부인의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시청이외 활동에서 부인의 취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평일이건 휴일이건 모두 남편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거의 영향을 받지않는 반면, 부인은 자

신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역별 여가활동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인에게 있어 취업여부의 영향은 휴일보다는 평일에 더 두드러지는 데, 평일의 신문·잡지, 독서, 취미오락, 운동 등 영역에서 비취업한 부인의 여가시간이 취업한 부인의 여가시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길다. 그리고 휴일에는 가족단란 영역만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앞서 제시된 부부의 총여가시간과 활동영역별 여가시간 분석을 종합해보자. 우선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남편은 비록 평일에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휴일에는 8시간 정도의 상당한 여가시간동안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부인의 여가시간은 취업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평일 취업주부는 1시간의 TV·라디오 시청을 제외하면 특별히 여가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반해, 비취업주부는 모

임·교제, 독서, 가족단란, 신문·잡지, 운동, 취미오락, 강습수강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가를 즐기고 있고, 또 여가시간도 길다. 휴일의 경우 그 차이는 평일에 비해 크게 완화되지만, 여전히 취업주부보다는 비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마도 여성에게 주어진 가사노동이라는 또 다른 책임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취업한 부인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책임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 (2) 부부의 여가시간요구도

여가시간요구도를 측정하는 하는 4가지 문항 중 '노동시간과 수입을 줄여 자유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에 남편, 부인 모두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부부간 그리고 취업-비취업부인 간 점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채, 가사노동시간을 줄

〈표 8〉 부부의 여가시간요구도

	남 편			부 인			부부간 paired t-test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t-test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평균	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비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남편의 t 값	부인의 t 값
① 노동시간 줄여 자유시간확보	3.4	3.4	3.4	3.5	3.4	3.5	-0.9	0.2	0.0	0.5
② 가사노동시간 줄여 자유시간확보	2.8	2.6	2.7	2.9	3.2	3.0	-0.3	-4.0***	1.0	-2.1*
③ 연장노동으로 수입을 늘리고, 자유시간은 줄임	2.5	2.3	2.4	2.2	2.6	2.4	1.8	-1.8	0.9	-2.5*
④ 연장노동으로 수입 늘리고, 가사노동시간줄여 자유시간확보	2.4	2.4	2.4	2.7	3.0	2.8	-2.4*	-3.9***	-0.1	-1.7
총 여가시간요구도	3.0	3.0	3.0	3.2	3.3	3.2	-2.0*	-3.2**	0.0	-0.9

\* p < .05 \*\* p < .01 \*\*\* p < .001

여 자유시간을 확보한다'는 입장에는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많이 공감하였는데, 특히 비취업부인의 부부인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취업부인보다는 비취업부인이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노동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또 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남편들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을 확보할 만큼 여가시간이 적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위낙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만한 시간도 없는 것이다. 부인들 중에도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취업부인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만한 여지가 있는 반면, 취업부인들은 직업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중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가사노동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문항들과 반대되는 입장인 '연장노동으로 수입을 늘리고, 자유시간은 줄인다'는 문항의 점수는 높을수록 여가시간요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부간 점수차는 없고, 단지 부인들간에 점수차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비취업부인이 취업부인보다 약간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장노동으로 수입은 늘리고, 자유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서 확보한다'는 입장에 대

해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이, 또 취업부인보다는 비취업부인이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네문항을 합한 총 여가시간요구도는 남편보다는 부인이 더 높았고, 이러한 부부간 차이는 취업부인부부와 비취업부인부부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부의 여가비용

부부의 총여가비용은 개인여가비용과 부부여가비용, 그리고 가족여가비용을 모두 합한 값으로 남편의 경우 27만5천원, 부인의 경우 21만7천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더 많다. 부인의 취업여부를 고려할 때, 총여가비용은 비취업부인의 남편→비취업부인→취업부인의 남편→취업부인의 순으로 많다. 여가비용의 차이는 특히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간에, 그리고 취업한 부인의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부부간 비교하든, 부인간 비교하든 간에 취업부인의 여가비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비용 내역별로 볼 때, 개인관련 여가비용은 남편평균 9만 8천원, 부인평균 5만3천원으로 남편의 개인여가비용이 부인의 2배정도 된다. 이러한 부부간 차이는 취업부인의 부부와 비취업부인의 부

〈표 9〉 부부의 여가비용

(단위 : 만원)

	남 편			부 인			부부간 paired t-test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t-test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남편 전체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부인 전체	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비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남편의 t 값	부인의 t 값
개인여가비용	9.0	10.3	9.8	4.4	6.5	5.3	3.3***	2.5*	-0.7	-1.9*
부부여가비용	5.6	6.1	6.0	3.9	4.7	4.4	1.2	1.3	-0.3	-0.8
가족여가비용	10.5	13.1	11.7	9.2	14.9	12.0	0.7	-0.9	-0.7	-1.9*
총여가비용	25.1	29.5	27.5	17.5	26.1	21.7	2.2*	1.0	-0.8	-2.3*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부부의 여가만족도

	남 편			부 인			부부간 paired t-test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t-test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남편 전체	취업 부인	비취업 부인	부인 전체	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비취업부인 부부간 paired t 값	남편의 t 값	부인의 t 값
여가만족도	2.8	3.1	3.0	2.6	3.0	2.8	1.8	1.3	-2.4*	-2.9**

\* p < .05 \*\* p < .01 \*\*\* p < .001

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부인이 취업부인보다 약 2만원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외 부부여가비용과 가족여가비용의 경우 남편-부인간, 그리고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가족여가비용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가비용에 있어서도 취업부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부인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가에 투자하는 비용 또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3. 부부의 여가만족도

부부의 여가생활만족도는 다음의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 부인 모두 그리 높지 않은 '그저 그런' 상태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통계조사와 생활시간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인보다는 남편의 만족도가 더 높고, 또 취업부인 부부보다는 비취업부인 부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적은 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길고, 여가비용이 높은 비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취업에 따라 여가시간이나 여가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남편의 여가만족도가 부인의 취업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흥

미로운 결과이다. 즉,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객관적 여가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편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어 취업한 부인을 둔 남편의 여가만족도가 비취업한 부인을 둔 남편의 여가만족도보다 낮은 것이다.

여가만족도가 비취업부인의 남편-비취업부인-취업부인의 남편-취업부인의 순으로 높다는 결과는 앞서 여가비용과 비슷한 경향이다.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의 여가관련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여가만족도가 산출된다고 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취약한 여가생활을 하는 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만족도는 개인의 사회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제 조건들-여가시간, 여가시간요구도, 여가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종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부인의 취업여부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 여가시간요구도, 여가비용 등의 여가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여가만족도에 주는 영향요인과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크게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취업부인의 남편, 비취업부인의 남편, 취업부인, 비취업부인으로 세분

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은 enter방식으로 하였고, 분석에 대한 해석 이전에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 충실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잔차간 분산의 동질성(homoscedasticity), 잔차간 체계적 관련성(serial correlation of error),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다. 우선 잔차의 표준화된 산포도를 산출한 결과 각 점들이 0을 중심으로 고루 펴져있어 잔차의 분산이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그 값이 모두 2에 가까워 잔차간 체계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0.5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남편의 여가만족도는 휴일의 여가시간( $\beta = 0.25$ )과 부인의 취업여부( $\beta = -0.17$ ) 그리고 가족여가비용( $\beta = 0.16$ )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즉, 부인이 비취업이고, 휴일의 여가시간이 길고, 가족여가비용이 많을수록 남편의 여가

만족도는 커진다. 남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8%정도 된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한 부인의 남편과 취업하지 않은 부인의 남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 남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취업부인 남편의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길수록( $\beta = 0.29$ ), 여가시간요구도가 낮을수록( $\beta = -0.27$ )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인의 취업은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약한다고 볼 때, 여가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현실이 그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여가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비취업부인 남편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 $\beta = 0.29$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편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여가비용( $\beta = 0.31$ ), 평일여가시간( $\beta = 0.19$ ), 휴일여가시간( $\beta = 0.17$ ) 등이 있다(표 12). 즉 예측하였던 바대로 개인여가비용이 많을수록,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여가만족도가 더 높아

〈표 11〉 남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종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체 남편		취업부인의 남편		비취업부인의 남편	
	Beta	b	Beta	b	Beta	b	Beta	b
연령	-0.09	-8.5	-0.01	-6.7	-0.06	-6.7		
교육수준	0.11	3.7	0.12	3.8	0.07	2.6		
가계소득	0.07	4.2	-0.01	-1.9	0.06	3.2		
주택소유여부(소유)	-0.02	-2.6	-0.01	-0.1	0.04	6.8		
평일 여가시간	0.05	4.1	-0.04	-3.0	0.29*	2.8		
휴일 여가시간	0.25***	1.0	0.29**	1.1	0.11	4.6		
개인여가비용	0.02	1.3	-0.13	-7.0	0.11	8.1		
부부여가비용	0.01	7.5	0.08	4.4	-0.10	-8.6		
가족여가비용	0.16*	5.0	0.07	2.6	0.21	5.9		
여가시간요구도	-0.10	-0.1	-0.27*	-0.4	0.05	7.6		
부인취업여부(취업)	-0.17*	-0.3	-	-	-	-		
R square		.18		.20		.22		
F 값		3.2***		2.1*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전체 부인		취업부인		비취업부인	
	Beta	b	Beta	b	Beta	b
연령	0.13	1.6	-0.06	-7.6	0.40**	4.7
교육수준	0.13	4.8	0.13	4.4	0.15	5.5
가계소득	-0.14	-9.0	-0.13	-9.8	-0.11	-6.3
주택소유여부(소유)	0.01	2.4	0.14	0.2	-0.17	-0.3
평일 여가시간	0.19*	1.0	0.19*	1.3	0.04	2.0
휴일 여가시간	0.17*	8.6	0.15	7.7	0.17	9.9
개인여가비용	0.31***	3.4	0.29**	4.7	0.39***	3.4
부부여가비용	-0.09	-1.0	-0.09	-1.1	-0.18	-1.9
가족여가비용	-0.07	-2.8	-0.26	-1.7	0.01	4.4
여가시간요구도	-0.11	-0.2	-0.11	-0.2	-0.07	-0.1
취업여부(취업)	0.14	2.6	-	-	-	-
R square	.26		.30		.33	
F 값	5.1***		3.4***		3.5***	

\* p < .05 \*\* p < .01 \*\*\* p < .001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6%정도 된다.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으로 나누어 볼 때, 우선 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에는 개인여가비용( $\beta = 0.29$ )과 평일여가시간( $\beta = 0.19$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취업부인의 개인여가비용이 많고, 평일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비취업부인의 경우, 연령( $\beta = 0.40$ )과 개인여가비용( $\beta = 0.39$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고, 개인여가비용이 많을수록 비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비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에 있어서 여가시간은 그리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 오히려 연령이 더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편과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종합해 볼 때, 여가시간과 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반면 예상과 달리 인구통계적 변수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비취업부인을 제외한 3집단, 즉 취업부인의 남편, 비취업부인의 남편, 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은 여가시간이다. 이 세 집단 모두 직업노동시간에 의한 시간적인 제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가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가 이들의 여가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남편의 경우 여가시간이라는 객관적 조건이외에도 부인의 취업이 여가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취업유무가 남편의 여가만족도에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인지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볼 때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부인의 경우 남편과 달리 개인의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모두에게서 개인의 여가비용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이는 여가에 투자하는 시간 뿐 아니라 여가에 투자하는 비용 또한 부인의 여가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덜한 비취업주부의 경우 여가비용의 여가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만족도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부부간 그리고 부인의 취업여부간에 비교 검증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부부의 총여가시간은 남편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어 평일 1시간 31분, 휴일 7시간 47분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취업부인의 경우 평일 2시간 5분, 휴일 5시간 24분, 비취업부인의 경우 평일 4시간 41분, 휴일 6시간 46분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에는 비취업부인-남편-취업부인 순으로 여가시간이 많고, 휴일에는 남편-비취업부인-취업부인 순으로 여가시간이 많다. 이러한 양상은 활동영역별 여가시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은 비록 평일 과중한 직업노동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취업부인들은 평일에는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에, 그리고 휴일에는 밀린 가사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지적해준다.

둘째, 부부의 총여가비용은 남편이 27만5천원으로 부인(21만7천)보다 더 많다. 부인의 취업여부를 고려할 때, 총여가비용은 비취업부인의 남편→비취업부인→취업부인의 남편→취업부인의 순으로 많다. 여가비용의 부부간 차이는 특히 개인여가비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편평균 9만 8천원, 부인평균 5만3천원으로 남편의 개인여가비용이 부인의 2배정도 된다. 이러한 부부간 차이는 취업부인의 부부와

비취업부인의 부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가비용에 있어서도 취업부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부인은 기본적으로 시간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가에 투자하는 비용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여가만족도는 남편, 부인 모두 그리 높지 않은 '그저 그런' 상태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인보다는 남편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고, 또 취업부인의 남편과 부인보다는 비취업부인의 남편과 부인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여가비용과 마찬가지로 여가만족도도 비취업부인의 남편-비취업부인-취업부인의 남편-취업부인의 순으로 높았다.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의 여가관련 투입요소들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여가만족도가 산출된다 고 할 때,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취업부인의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넷째, 부부의 여가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분석을 종합해보면,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가시간이 길수록,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남편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부인의 취업여부가 여가시간이라는 객관적 조건이외에 여가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부인은 남편과 달리 개인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이다. 취업여부에 따라서 다른 점은 시간제약을 가지는 취업부인의 경우 여가시간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제약이 덜한 비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상에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여가시간의 확보는 전반적 여가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가시간부족의 문제는 직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남편과 취업부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시간의 통근시간을 합한 직업 노동관련 시간을 제외하면 결국 최소한의 생리적 시간만 남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취업부인은 남편 보다도 더욱 과중한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부담이 취업부인의 여가시간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가 여가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남편이건 부인이건 취업한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여가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여가생활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조건으로 ‘노동시간단축’을 내세우고 있다. 즉, ‘노동생활의 인간화’(一番ヶ瀬康子 외, 1994)라는 관점을 제기하면서,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예로는 주휴2일제 보급,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인상 및 이용촉진, 연속휴가보급, 정규노동시간외 임업규제, 융통적(flexible) 근무시간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취업부인의 경우, 이러한 직업노동시간의 단축 뿐 아니라 가사노동시간 단축 또한 여가생활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남편과 다른 가족원들의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사회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시간제약이 덜한 비취업주부의 경우 ‘여가시간’보다는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가만족도가 단순히 양적 여가시간만 확보된다고 해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 여가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될 때 만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여가활동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가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권으로서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으로서 여가정책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여가비용문제와 관련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질 높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적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가와 고학력화에 수반된 자유시간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여가생활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경식(1996). 대도시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홍성희(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김애련·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 김외숙(1977).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외숙외 7인(1995). 서울시 아파트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3 :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 문화체육부(1995).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
- 민경애·윤복자(1985).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 박진경(1994).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15(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시민 생활시간조사.
-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 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 이기영외 4인(1996). 도시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 이성철(1995).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여가만족 및 고독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16(2).
-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이정연(1997). 여가활동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등(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린(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 진봉국(1993).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관광공사(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 한국방송공사(1996).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 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 伊藤セツ 외 1인 共著(1989).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
- 森ます美(1989). 長時間労動と家庭生活, in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 43-65.
- 一番ヶ瀬康子 외2인 (1994). 餘暇生活論, 有斐閣.
- 天野寛子 외 4인(1996). 世田谷區民の生活時間のジエングラー分析, 世田谷ライフデザイン研究會.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Dumazedier, J.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Firestone, J. & B.A. Shelton(1988) An estimation of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83-495.
- Nickols S.Y. & M. Abdel-Ghany(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ub.
- Ragheb, M. 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 Riddick, C. C. (1986).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59-265.
- Robinson, J.P. (1977). How Americans Use Time.  
NewYork, Prager Publisher.
- Russell, R. V. (1987). The importance of recreation  
satisfac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to life  
satisfaction of age-segregated retire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 273-283.
- Sneegas, J. J. (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ddle and later life adult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  
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48-258.